아이오아이→워너원→아이즈원→? | 프로젝트 그룹은 계속된다

‘제2의 워너원’ 카운트다운

‘프로듀스 시즌4’, 남성그룹 준비
1월까지 지원자 모집…4월 방송
케이팝시장 흔들 뉴페이스 기대

‘아이오아이→워너원→아이즈원→?’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이 이달 31일, 1년6개월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체한다. 워너원은 2017년 8월 데뷔와 동시에 음반과 광고 분야를 섭렵하며 국내 아이돌 시장의 최정상에 올랐다. 올 한해 가요계는 물론 대중문화 전반을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만큼 뜨거운 열기는 뿜어내지 못했지만 앞서 여성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I.O.I)가 팬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워너원은 2017년, 아이오아이는 그 한 해 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시즌3인 ‘프로듀스 48’은 올해 그룹 아이즈원을 새롭게 조직하기도 했다.

‘프로듀스 101’은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힘을 확인하며 내년 상반기 워너원의 뒤를 이을 ‘뉴 페이스’를 탄생시킬 전망이다. 가요계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향후 케이팝 시장의 지형도 변화를 내다보며 벌써부터 촉각을 드러내고 있다.

‘프로듀스 101’은 내년 네 번째 시리즈 ‘프로듀스 엑스 101’을 상반기 선보인다. 이번에는 워너원의 후계가 될 남성 프로젝트 그룹을 완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송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4월로 예상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1월 중순까지 지원자를 모집한 후 선별 과정을 거쳐 4월 시청자에게 본선 진출자를 선보인다. 지원자들은 지금까지 방식과 마찬가지로 데뷔 경험을 지닌 신인이거나 기획사에서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받은 연습생 또는 개인적으로 가수 꿈을 키우고 준비해온 지망생 등 남성이면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작진이 시즌4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을 목표로 기획한 것은 워너원이 가요계에서 일으킨 파급력 등 핵폭탄급 인기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또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남성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는 현재 케이팝 시장의 추세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시청률이나 화제성도 걸그룹을 배출한 시즌1(아이오아이)이나 시즌3(아이즈원)보다 워너원을 탄생시킨 시즌2가 가장 높았다. 시즌1은 최고 시청률 4.4%(이하 닐슨코리아), 시즌2는 5.2%, 시즌3은 3.1%였다.

또 아이돌 그룹을 움직이는 팬덤이 여성 위주로 구축되어 있고, 이들이 음반과 음원, MD상품 등을 소비하며 높은 충성도를 자랑하는 만큼 남성 아이돌 시장에 또 한 번 눈을 돌릴 것으로도 보인다. 막강한 여성 팬덤을 움직여 워너원의 인기에 버금가는 아이돌 그룹이 탄생할지 시선이 쏠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016년 그룹 아이오아이에 이어 2017년 워너원, 올해 아이즈원(맨 위 사진부터)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발굴됐다. 2019년 ‘프로듀스 101’ 시즌4가 새로운 스타를 찾기 위해 나선다. 주인공은 누구일까. 사진제공 | CJ ENM

‘예측 불허의 맛’ 오디션 프로, 내년 부활 조짐

올해 화제작 없어도 기대감 여전
‘스테이지 K’ ‘지니캐스팅’ 등 예정

예전 같지 않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기가 내년에는 다시 달아오를까. 올해 이렇다 할 화제작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움직임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주목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져왔다. 현재만 해도 MBC ‘언더 나인틴’, SBS ‘더 팬’, MBC뮤직 ‘창작의 신:국민 작곡가의 탄생’, 채널A ‘보컬플레이’ 등이 방영 중이다. 내년에는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4부터 MBC플러스 ‘지니캐스팅’, MBC뮤직 ‘타깃:빌보드-킬 빌’, JTBC ‘스테이지 K’가 선보인다.

하지만 올해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앞서 KBS 2TV ‘더 유닛’과 ‘댄싱하이’, JTBC ‘믹스나인’ 등이 소리 소문 없이 막을 내렸다. 그런데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왜일까.

프로그램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제작진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어떤 참가자가 대중의 호감을 살지 예상할 수 없지만, 참가자의 매력이 불특정 다수의 취향을 저격했을 때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한 명의 참가자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차별성도 외면할 수 없다. 제작진은 오디션의 특성을 다양하게 변주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장르와 영역을 더욱 넓힐 전망이다. ‘지니캐스팅’은 길거리 오디션이라는 콘셉트로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밑바탕 삼는다. ‘킬 빌’은 국내를 넘어 미국 빌보드 차트 입성을 목표로 한다. 최종 우승자가 된 래퍼가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스테이지 K’는 참가자들이 기존 가수들의 퍼포먼스를 ‘커버’해 마지막 한 무대에 서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국가부도의 날’…편견을 깬 ‘특별한 흥행’

경제 이야기·여성중심 멀티캐스팅
흥행 우려 깨고 깊은 공감대 형성

“유의미한 영화이길 원한다”는 제작진의 바람이 관객과 통했다. 경제 아이템을 다룬 영화는 흥행하기 어려울 거란 편견도 깼다. 멀티캐스팅 영화의 중심은 남자배우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역시 허물어뜨렸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쌓은 의미 있는 성과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손익분기점(260만명)을 돌파하고, 개봉 3주차 주말인 16일 현재까지도 350만 관객 동원을 이어간 ‘국가부도의 날’(감독 최국희)은 경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첫 상업영화다. 이전까지 주식 등을 소재 삼은 적은 있지만, 나라와 국민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실화를 현실감 넘치게 스크린에 옮긴 작업은 처음이다. 관객들이 ‘IMF가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당시 경제 위기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과감한 기획에 기대의 시선도 있었지만 개봉 직전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무겁고 진중한 경제 이야기, 특히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IMF 외환위기 실화라는 점에서 ‘흥행 예측’은 쉽지 않았다.

결과는 달랐다. ‘국가부도의 날’의 흥행은 앞서 경제 이야기를 소재 삼은 ‘빅쇼트’(44만명) 등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에서 거둔 기록과도 뚜렷하게 다르다. 현실을 적극 반영한 이야기에 그만큼 관객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마케팅사 퍼스트룩의 강효미 대표는 “경제 이야기가 어렵거나 낯설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작 관객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 현재 경제 상황에 빗대 이성적이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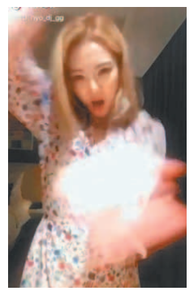
제작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영화에 가장 몰입하는 관객층은 ‘40대 남성’. 가장인 동시에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층인 만큼 영화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타급 배우 여럿이 전면에 나선 영화의 중심을 여성 캐릭터로 내세워 성공한 것도 영화의 성취다. 이를 배우 김혜수에 맡긴 건 최적의 캐스팅이란 평가다. 제작사 영화사 집의 이유진 대표는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라 개인적으로도 시나리오에 더 매력을 느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당당함을 가진, 소신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배우로 김혜수가 가장 적합했기에 영화를 통틀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이었다”고 밝혔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해시태그 컷



효연의 ‘전지현 따라잡기’

소녀시대 효연이 “혼자 놀 줄 아는 여자”의 진수를 보여줬다. 효연은 “전지현 언니 추억 광고 스타일, 아는 사람?”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효연은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격렬한 몸놀림을 보여준다. 그의 말처럼 1990년대 전지현의 한 프린터 광고에서 흰색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모습을 본 멤버 태연이 “내가 아는 에너자이저 중에 머리 제일 노란 애”라고 댓글을 남겨 팬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스포츠동아 #소녀시대 #효연 #전지현따라잡기

연예뉴스 HOT 2

AOA 설현, 공연중 현기증 병원행

걸그룹 AOA의 설현이 공연 도중 현기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컨디션 난조로 인한 과호흡”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설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다”며 “가벼운 감기증상으로 목이 붓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인원이 몰린 실내 무대의 더운 공기로 인해 순간 과호흡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설현은 1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한 축하무대에서 힘들어하며 발을 헛디딘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설현이 무대 중 터뜨린 화약에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튿날 ”주최 측 확인 결과 행사에 사용된 특수효과 자체는 화약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불꽃이었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개그우먼 김영희, 빚투 논란 해명

개그우먼 김영희가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 진 빚과 거짓말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김영희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다”면서 “신인시절부터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많은 협박을 받아왔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지난해 이혼했고, 아버지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책정 금액만 아버지가 갚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빚투’ 의혹이 처음 불겨지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도망가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편집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